한국지방정부학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울산대학교

울산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 연구

2018. 4. 6.(금)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정책연구팀 이혜진

차 례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다문화가정 자녀 관련 기존 자료 및 제도 검토
3.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설문조사 분석
4.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서 제공하는 2015년 외국인주민 자녀 통계 중 울산시 거주 만 6세~18세의 인구는 2,202명임. 교육통계에서 제공하는 통계치에서 동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740명과 비교하면, 학령기임에도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학생은 400여명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전국(1.7%)에 비해 울산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조금 낮지만, 울산의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6년은 2,207명으로 울산지역 총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은 1.5%를 차지함.
- 학교급별 구성비는 초등학생이 80.5%로 가장 많고, 중학생 12.3%, 고등학생 7.2% 로 나타났지만, 앞으로는 고학년에서의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의 증가가 예상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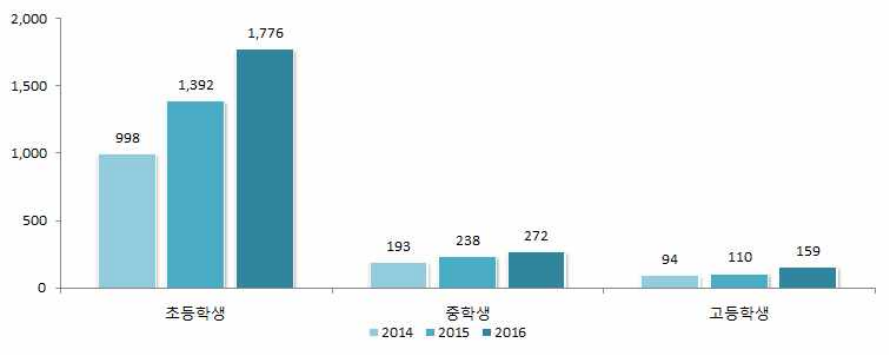
<표 1> 전국 및 울산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단위: 명, %

지역	연도	다문화 학생수*					구성비율					다문화 학생 비율
		계	초	중	고	기타	계	초	중	고	기타	
전국	2014	67,799	48,225	12,506	6,722	346	100.0	71.1	18.4	9.9	0.5	1.1
	2015	82,528	60,162	13,827	8,138	401	100.0	72.9	16.8	9.9	0.5	1.3
	2016	99,137	73,972	15,080	9,767	318	100.0	74.6	15.2	9.9	0.3	1.7
울산	2014	1,285	998	193	94	0	100.0	77.7	15.0	7.3	0.0	0.8
	2015	1,740	1,392	238	110	0	100.0	80.0	13.7	6.3	0.0	1.1
	2016	2,207	1,776	272	159	0	100.0	80.5	12.3	7.2	0.0	1.5

자료: 교육부,「다문화가정 학생현황」각년도
*국제결혼가정 학생(국내출생+중도입국)+외국인가정 학생
출처: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보도자료(2017.4.26.) '청소년 통계(울산)', 4쪽

<그림 1> 울산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자료: 교육부,「다문화가정 학생현황」각년도
*국제결혼가정 학생(국내출생+중도입국)+외국인가정 학생
출처: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보도자료(2017.4.26.) '청소년 통계(울산)', 4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다문화가정 자녀 수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학교생활 및 문화의 차이 또는 학습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학업을 중단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도 있음.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울산지역 전체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학생의 가정 생성배경(국제결혼, 외국인가정), 출생지(국내, 국외), 거주지, 학교급 등에 따라 특성과 정책 수요도 상이하기 때문에, 학생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정책이 필요함.
- 이러한 이유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2. 다문화가정 자녀 관련 기존 자료 및 제도 검토

- 여성가족부에서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4조(실태조사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에 따라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2015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2015년 전국 조사')에서는 초등 학령기 자녀 유입이 확대되면서 이들이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주요 정책 수요집단이 될 것으로 분석함.
-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정책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포함)은 통일부가 주도하여 추진함.「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중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영역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한국어 능력향상', '학교생활 초기 적응지원', '기초학력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임.

2. 다문화가정 자녀 관련 기존 자료 및 제도 검토

- 울산지역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은 주로 울산교육청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레인보우스쿨에서 운영하고 있음. 교육청 주도의 다문화교육이나 다문화 정책학교 운영은 양질의 프로그램이 세심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학교 제도 밖에 있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지원은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임.

3.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설문조사 분석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울산지역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 대상자 수 : 총 260명(다문화가정 자녀 228명, 중도입국자녀 32명)
- 자료수집 :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상 조사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연구원들이 직접 수행함.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설문조사는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울산광역시 5개 구·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 대상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을 중심으로 대부분 진행되었음. 일부 설문조사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다문화공부방에 참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1차 설문조사 이후, 울산시글로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학습지교육업체의 협력으로 추가조사 실시함.

3.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설문조사 분석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46.3%, 여자 53.7%이며, 성장배경은 국내성장자녀 87.7%, 중도입국자녀는 12.3%였고, 거주지는 중구 14.6%, 남구 11.9%, 동구 11.9%, 북구 22.7%, 울주군 27.3%임.
- 본인의 국적상태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사람' 80.3%, '원래 외국사람이었고, 지금은 한국사람' 9.1%, '외국사람'은 10.6%으로 나타남. 부모의 국적상태는 '한국국적 부 + 외국국적 모'는 85.5%였으며, '외국국적 부 +한국국적 모'는 0.8%, 외국국적 부모(귀화하지 않은 재외동포 포함)는 13.7%로 나타났음.
- 아버지 본래 국적은 '한국'이 85.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어머니의 본래 국적은 베트남' 43.5%, '중국'은 30.8%, 일본 9.5% 등으로 나타남. 초등학생 91.6%, 중학생 7.6%, 고등학생 0.8%로 집계됨.
- 학교급은 초등학교 저학년생 64.1%, 초등학교 고학년생 27.4%, 중고등학생 8.5%임.

<표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1)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20	46.3
		여자	139	53.7
		합계	259	100.0
성장배경		국내성장자녀	228	87.7
		중도입국자녀	32	12.3
		합계	260	100.0
거주지		중구	38	14.6
		남구	61	11.9
		동구	31	11.9
		북구	59	22.7
		울주군	71	27.3
		합계	260	100.0
현재 다니는 학교		일반 초등·중등·고등학교	236	92.5
		다문화학교(다문화예비학교 등)	17	6.7
		기타	2	0.8
		합계	255	100.0
학년	초등학교	1학년	62	24.9
		2학년	55	22.1
		3학년	43	17.3
		4학년	29	11.6
		5학년	19	7.6
		6학년	20	8.0
	중학교	1학년	11	4.4
		2학년	5	2.0
		3학년	3	1.2
	고등학교	1학년	2	0.8
	합계		249	100.0

<표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2)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국적 상태	태어날 때부터 한국사람		204	80.3
	원래 외국사람이었고, 지금은 한국사람		23	9.1
	외국사람		27	10.6
	합계		254	100.0
부모의 국적 상태	한국국적 부 + 외국국적 모		213	85.5
	외국국적 부 + 한국국적 모		2	0.8
	외국국적 부모(재외동포 포함)		34	13.7
	합계		249	100.0
언어 능력	편한 언어	한국어	201	78.8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언어	14	5.5
		한국어와 부모님 나라의 언어 모두	40	15.7
		합계	255	100.0
	한국어 능력	하	13	5.0
		중	47	18.1
		상	199	76.8
		합계	259	100.0
	부모님 나라 언어 능력	하	123	48.2
		중	69	27.1
		상	63	24.7
		합계	255	100.0

3.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설문조사 분석 - 언어능력 및 가족관계

- 언어능력은 편한 언어로 '한국어'라고 답한 사람은 78.8%,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언어'라고 답한 사람은 5.5%, '한국어와 부모님 나라의 언어 모두'라고 답한 사람은 15.7%로 나타남. 국내성장자녀보다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이중언어구사능력이 높았음. 한국어능력에 대해 '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 '중'에 해당하는 사람은 18.1%, '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76.8%임. 한국어능력이 '중, 상(보통이상)'인 국내성장자녀는 96.9%였고, 중도입국자녀의 경우는 80.7%로 나타났음.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 언어능력에 대해 '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48.2%, '중'에 해당하는 사람은 27.1%, '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24.7%임. 부모님 나라 언어능력이 '중, 상(보통이상)'인 국내성장자녀는 47.3%, 중도입국자녀는 87.1%로 나타남.
- 가족과의 관계는 모두 4점 이상(5점 척도)이며, 다문화 배경 자긍심은 평점 3.65로, 특히 아버지와의 사이가 '2015년 전국조사'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음. 가족관계나 다문화 배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설문조사 분석 - 학교생활(1)

-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46.3%, 여자 53.7%이며, 성장배경은 국내성장자녀 87.7%, 중도입국자녀는 12.3%였고, 거주지는 중구 14.6%, 남구 11.9%, 동구 11.9%, 북구 22.7%, 울주군 27.3%임.
- 본인의 국적상태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사람' 80.3%, '원래 외국사람이었고, 지금은 한국사람' 9.1%, '외국사람'은 10.6%으로 나타남. 부모의 국적상태는 '한국국적 부 + 외국국적 모'는 85.5%였으며, '외국국적 부 +한국국적 모'는 0.8%, 외국국적 부모(귀화하지 않은 재외동포 포함)는 13.7%로 나타났음.
- 아버지 본래 국적은 '한국'이 85.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어머니의 본래 국적은 베트남' 43.5%, '중국'은 30.8%, 일본 9.5% 등으로 나타남. 초등학생 91.6%, 중학생 7.6%, 고등학생 0.8%로 집계됨.
- 학교급은 초등학교 저학년생 64.1%, 초등학교 고학년생 27.4%, 중고등학생 8.5%임.

3.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설문조사 분석 - 학교생활(2)

- 국내성장자녀의 경우 '공부(숙제) 도와줄 사람 없음'을 학교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으나, 중도입국자녀의 경우는 '수업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 학교급에 따라 어려워하는 과목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는 국어와 수학이 제일 어려운 과목으로 나타났으나, 초등학교 고학년생은 영어가 가장 어려웠고, 중고등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어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p<.001$).
- 사교육 경험 '있음'이 67.5%로 나타났고,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서의 다문화자녀 사교육 참여율(64.2%)보다는 높고, 한국 청소년 사교육 참여율('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가부) 73.6% 보다는 낮게 나타났음.
- 전체 청소년과의 사교육 참여 격차가 훨씬 크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대학입시의 비중이 큰 한국의 교육환경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자리할 수 있음.

3.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설문조사 분석 - 차별・무시 경험

- 차별·무시 경험 '있음'이 14.3%이며('2015년 전국조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 있냐는 설문에 9.4%가 있다고 응답함(2012년 13.8%). 이번 울산조사에서는 광범위한 차별・무시 경험을 물었음.), 친구로부터 차별 상황에 대한 평점은 3.38점로 다른 대상들보다 가장 높게 나타남. 일상생활에서 접촉빈도가 가장 높고 중요한 준거집단인 친구와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이나 인권교육 등이 필요함.
- 차별·무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상대에게 사과 요구,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 드림, 친구들과 의논)이 91.1%, 참았음 41.2%, 별다른 생각 없이 넘어감이 20.6%로 나타남(다중응답). '2015년 전국조사'에서는 차별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비율이 63.9%(2012년 44.8%), 차별 시 참거나(44.9%) 넘어가는 비율(26.4%)이었던 것 보다 울산조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3.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설문조사 분석 - 심리상태

- 부정적인 심리상태(4점 척도)에 대한 평점은 1.53점이며, 전체 응답자의 43.1%가 우울감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으므로 '2015년 전국조사' 19.2%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긍정적인 심리상태(5점 척도)는 '나는 내가 많은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한다'(자긍심) 3.72점,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자신감) 3.79점, '전반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자존감) 4.01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2015년 전국조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평균 3.81점으로 나타나 울산조사와 비슷하였음.

3.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설문조사 분석 - 요즘 고민

- 요즘 고민으로 '공부, 성적 등' 50.2%, '인터넷/스마트폰 많이 사용' 30.7%, '용돈 부족' 27.0%, '친구 관계' 24.1% 순으로 나타났는데, 울산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초등학생, 중학생이므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낮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 고민으로 꼽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터넷·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고민 상담 상대로 '어머니'가 63.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 32.5%, '친구·동료' 25.3%, '스스로 해결' 21.3%, '선생님' 15.7% 순으로 나타남. 한국청소년('2014년 청소년조사')들과 비교해서, 고민상담 상대로 친구동료(46.2%)는 13%p 더 낮고, 부모님과 상의하는 비율(어머니 22.3%, 아버지 3.8%)은 15.9%p 더 높아 다문화가정 자녀들보다 친구나 동료에 대한 의존도 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정서적 의존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3.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설문조사 분석 - 요즘 고민

- 다문화가정 자녀들보다 친구나 동료에 대한 의존도 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정서적 의존이 더 높은 것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초중학생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다문화가정 자녀가 자신의 고민을 부모와 상의하는 비율이 일반 청소년보다 높은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청소년기가 부모로부터 심리적 거리두기와 또래집단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발달과제라는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또래관계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3.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설문조사 분석 - 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 이용, 필요

- 지원시설 중 인지도와 이용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학교 내 방과 후 교실'이었으며, 인지도와 이용도가 가장 낮았던 것은 '청소년 상담 및 지원센터'이었음.
-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프로그램 참가 여부 및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들에게 주어진 설문 중 이용도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은 '학습지원(방문학습, 멘토링받기)'이었으며,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도 '학습지원(방문학습, 멘토링받기)'였음. 그리고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도 역시 '학습 지원(수학, 영어, 과학 등)'으로 나타났음. 이렇듯 울산지역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여러 지원프로그램 중에 '학습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3> 관련시설 인지 및 지난 1년간 이용 상황

단위: 명(%)

시설	모른다	알고 있고, 이용한 경험 있다	알고 있지만, 이용한 경험은 없다	합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1 (24.6)	130 (52.4)	57 (23.0)	246 (100.0)
학교 내 방과 후 교실	23 (9.3)	189 (76.5)	35 (14.2)	247 (100.0)
공부방 · 지역아동센터	67 (27.5)	103 (42.2)	74 (30.3)	244 (100.0)
청소년상담 및 지원센터	120 (50.4)	26 (10.9)	92 (38.7)	238 (100.0)
사회복지관	114 (47.7)	38 (15.9)	87 (36.4)	239 (100.0)

<표 4> 프로그램 참가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구분	참가한 적없다	전혀도움 안된다	별로도움 안된다	보통	도움 된다	매우도움된다	합계	평점 (5점척도)
한국어 배우기	120 (49.4)	3 (1.2)	3 (1.2)	26 (10.7)	35 (14.4)	56 (23.0)	243 (100.0)	4.12
이중언어 교육	132 (54.8)	5 (2.1)	10 (4.1)	31 (12.9)	30 (12.4)	33 (13.7)	241 (100.0)	3.70
학습지원 (방문 학습, 멘토링 받기 등)	75 (30.0)	4 (1.6)	4 (1.6)	38 (15.2)	63 (25.2)	66 (26.4)	250 (100.0)	4.04
학습, 친구, 가족, 이성에 대해 상담받기	141 (59.2)	4 (1.7)	11 (4.6)	28 (11.8)	27 (11.3)	27 (11.3)	238 (100.0)	3.64
다문화이해교육 수업 받기	111 (45.7)	2 (0.8)	11 (4.5)	38 (15.6)	40 (16.5)	41 (16.9)	243 (100.0)	3.82
진학지도 (고교입시, 대학입시, 검정고시 등)	174 (73.7)	1 (0.4)	6 (2.5)	24 (10.2)	17 (7.2)	14 (5.9)	236 (100.0)	3.60
진로교육	147 (62.6)	0 (0.0)	6 (2.6)	31 (13.2)	27 (11.5)	24 (10.2)	235 (100.0)	3.78
초기적응프로그램	**10 (41.7)**	**0 (0.0)**	**0 (0.0)**	**3 (12.5)**	**5 (20.8)**	**6 (25.0)**	**24 (100.0)**	**4.21**
국적취득교육	**12 (50.0)**	**0 (0.0)**	**0 (0.0)**	**3 (12.5)**	**5 (20.8)**	**4 (16.7)**	**24 (100.0)**	**4.08**

* 볼드체는 중도입국자녀에게만 제시된 항목임.

<표 5> 프로그램 필요 정도

단위: 명(%)

프로그램	전혀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평균
한국어 배우기	63 (25.5)	26 (10.5)	50 (20.2)	51 (20.6)	57 (23.1)	247 (100.0)	3.05
부모님 나라의 언어 공부	30 (12.2)	19 (7.7)	66 (26.8)	72 (29.3)	59 (24.0)	246 (100.0)	3.45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문화 공부	37 (14.9)	24 (9.7)	66 (26.6)	82 (33.1)	39 (15.7)	248 (100.0)	3.25
학습 지원(수학, 영어, 과학 등)	20 (8.0)	8 (3.2)	56 (22.5)	87 (34.9)	78 (31.3)	249 (100.0)	3.78
예체능(음악, 공연, 미술, 체육 등) 배우기	21 (8.6)	14 (5.7)	56 (23.0)	86 (35.2)	67 (27.5)	244 (100.0)	3.67
학습, 친구, 가족, 이성 관련 상담	52 (21.8)	32 (13.4)	71 (29.7)	55 (23.0)	29 (12.1)	239 (100.0)	2.90
진학 지도(고교입시, 대학입시, 검정고시 등)	67 (28.2)	34 (14.3)	58 (24.4)	46 (19.3)	33 (13.9)	238 (100.0) 100.0	2.76
직업교육(전기전자, 바리스타 과정, 요리, 미용기술 등)	53 (22.3)	30 (12.6)	51 (21.4)	61 (25.6)	43 (18.1)	238 (100.0)	3.05
아르바이트 및 직업 소개	77 (34.5)	25 (11.2)	46 (20.6)	49 (22.0)	26 (11.7)	223 (100.0)	2.65
한국사회 적응교육 (예절, 한국문화 교육)	**5 (21.7)**	**0 (0.0)**	**6 (26.1)**	**5 (21.7)**	**7 (30.4)**	**23 (100.0)**	3.39
친구 사귀기 교육	**5 (20.8)**	**2 (8.3)**	**5 (20.8)**	**7 (29.2)**	**5 (20.8)**	**24 (100.0)**	3.21
국적취득 교육	**6 (27.3)**	**2 (9.1)**	**6 (27.3)**	**5 (22.7)**	**3 (13.6)**	**22 (100.0)**	2.86

* 볼드체는 중도입국자녀에게만 제시된 항목임.

4. 결론 및 정책제언 - 1)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

- 현재, 울산지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임. 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초중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문화학교(다문화예비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친구관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교생활만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학교 안팎에서 또래관계를 강화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며 상호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됨. 아울러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친구나 선배, 선생님 등 신뢰할 수 있는 타인에 의한 심리·정서 지원이 요구됨.
-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 문화-엄마나라, 아빠나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언어, 문화 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이는 설문조사에서도 비교적 높은 다문화 배경 자긍심과,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프로그램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4. 결론 및 정책제언 - 1)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

-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국내출생자녀와 중도입국자녀는 성장과정에서 상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음. 또한 성장단계(주기별) 접근도 필요한데, 연령에 따라, 학교에 따라, 성장주기에 따른 학생들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울산지역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한국어 배우기'에 대한 수요 이후에는(한국어능력이 갖춰진 다음에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요구가 가장 높았음.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져 연령, 단계, 성격에 맞게 '학습 지원'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4. 결론 및 정책제언 - 1)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

-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초기 적응기에는 한국어 학습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한국문화 적응 훈련이 중요함. 학령기의 경우 학교 진학을 대비하여 학력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중간단계(징검다리) 교육이 연계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레인보우스쿨은 공교육제도에 바로 편입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하여 한국어교육과 사회적응, 문화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역량이 강화됨. 울산지역의 경우, 현재 '다문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없으므로, 레인보우스쿨의 지속가능한 안정적 운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이를 위한 울산광역시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며, 지역사회에서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임.

4. 결론 및 정책제언 - 1)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

- 일반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자녀관계에 소통문제 등 갈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여 '부모- 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접근도 필요함. 청소년기에 겪는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는 물론, 자녀가 다문화배경을 가진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갈등이 증폭되기도 함.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구축이 될 필요가 있음.
- 울산시 교육청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취학 전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효과적임. 학교진학에 앞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을 미리 확인하고 학교 및 수업 운영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본인의 성장환경과 다른 조건에서 학업을 하는 자녀들에 대한 이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다만, 학기가 진행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부모의 관심도가 낮아지는 것이 사실임. 지속적인 관심을 위하여 학교에서 가정으로 발송하는 통신문을 다국어로 안내하는 노력과 지원이 요구됨. 다국어통역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민간단체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도록 함.

4. 결론 및 정책제언 - 1)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는 고민이 높게 나타나지만, on-line 학생모임율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on-line을 이용한 차별·무시에 대한 대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 이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다양한 활용법에 관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중도입국자녀에 알맞은 진로·진학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폭 넓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학·취업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울산지역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해당 프로그램이 취약한 상태임.

4. 결론 및 정책제언 - 2)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강화

- 울산광역시는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와 외국인주민지원기관 실무협의회(시청, 교육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구성)를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울산시청 – 구군별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울산출입국사무소 – 중앙다문화교육센터와 다문화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부천시의 경우 민간단체 및 비영리기관 간에 소통하는 네트워크가 월간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례 및 자원 공유와 협력을 하고 있음. 이런 방식의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의 확장이 필요함.
- 지역 내 각 유관단체 및 기관 실무자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여 향후, 울산 전체 청소년네트워크와 결합하는 방식으로의 발전이 요구됨.

4. 결론 및 정책제언 - 3) 보편적 다문화이해교육 시행

- 다문화교육은 인종, 민족, 국적, 피부색, 언어, 종교 등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상호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의미함.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학생)이 참여하는 인권과 문화다양성, 반차별교육이 주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함. 의식주 중심의 단편적인 문화 소개를 지양하고, 한국, 일본을 비롯한 서양 강대국의 사회인식, 역사인식에 기초한 지식제공을 벗어나 형평성 있는 상호이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임.
- 학교 교원, 청소년기관 관계자,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다문화청소년이 생활하는 환경의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동료 학부모를 위한 교육도 필요함. 특히, 다문화 청소년이 다수 재학하는 학교의 경우,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교육 뿐 아니라, 전체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요구됨.
- 선주민 학부모와 이주민 학부모가 상호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도 방법임.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임.

감사합니다